

북스

어린이 책꽂이



▲최인호 동화집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소설가 최인호씨가 아들 도단이의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쓴 동화집. '도단이의 그림', '꽃을 가꾸는 도단이' 등 유년기에 가지는 꿈의 소중함과 어린이 이별만의 고민, 순수한 마음 등을 소재로 한 열한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처음주니어·9천800원)



▲별난 기자 본본, 우리 건축에 꼭 빠뜨리다=우리나라 전통 건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어린이신문 기자인 주인공이 우리 건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을 취재하여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지붕, 기둥, 마루, 온돌 등 우리 건축의 중요한 10가지 요소를 주제 삼아 이야기를 풀어 간다. (한겨레아일랜드·1만원)



▲찰리와 유령 텐트=영국의 대표작가로 부상하고 있는 할러리 매케이의 동화. '말썰왕 찰리' 시리즈의 여섯 번째 이야기로 찰리가 형을 위해 유령을 물리치는 악사자결함 소동이 펼쳐진다. 라이벌 형보다 더 멋져 보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을 넘어 결국에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시공주니어·6천원)



▲독서왕 수학왕=KBS '인간극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준 쌍둥이 장애아 형제, 환석과 우석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고정욱씨의 창작 동화다. 뇌성마비 때문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석, 우석 형제.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한 두 형제는 아침마다 휠체어 두대를 밀며 등교를 하는데... (파랑새·9천500원)



▲할머니와 빨간구두=어릴 때부터 빨간 구두를 한번 신어 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녀의 외증손녀는 그런 할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할머니의 백 세 생일이 다가오자 소녀는 엄마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티와 선물을 준비한다. 소중한 사랑과 마음을 나누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한다. (예곡·8천500원)



▲강남콩=1963년 간 영화계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을 책으로 엮은 것. 이브닝백을 만들어 생활하는 노파가 어느 날 우연히 주운 화분에 강남콩을 심으면서 벌어지는 사랑의 이야기다. 관화작가 유권열씨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림과 만나 새롭게 탄생했다. (우물이 있는 집·9천500원)



▲선생님이 작이잖아요=작어진 선생님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예상치 못한 모험 속에 빠지는 펠릭스의 이야기. 최악의 수학점수를 기록한 펠릭스는 수학선생님의 고향마을로 선생님이 작아지는 상상을 한다. 그 상상은 곧 현실이 되고, 펠릭스는 달걀 껍을 먹는데... (한림·9천500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목소리로 어린시절과 꿈을 이룬 과정, 상대성 이론에 대해 설명한다. '왜 그렇게 큰 공금하게 많니?'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아인슈타인, 위인의 생각의 발전을 가까이서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비보새·1만3천800원)

7년간 사막과 대화 ... 인생을 가슴에 담았다

나는 오늘도 사막을 ...

김효정 지음



쉽씨 50도가 넘는 열사의 사막. 작렬하는 태양 아래 갈증은 심해지고, 발에는 이미 20개가 넘는 물집이 잡혔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하지만 그녀는 결코 달렸다. 그렇게 7년 동안 고비 사막 등 다섯 개 사막, 1천 51km를 완주했다.

영화 프로듀서 김효정씨가 세계 5대 사막 레이스를 완주한 이야기를 담은 '나는 오늘도 사막을 꿈꾼다'를 펴냈다. 사막 레이스는 보통 6박 7일 동안 최소한의 식량과 찬물을 메고 약 250km를 달리는 고독한 경주다. 김씨는 2004년 4월 모로코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다녀온 후 중국 고비(2005년 4

월), 칠레 아타카마(2006년 7월), 이집트 사하라(2007년 10월), 남극(2008년 11월) 등 5개 사막 레이스를 완주한 '사막 레이스 그랜드 슬램머'다. 동양 여성으로는 최초, 전 세계 여성으로는 세번째.

현재 '사막 레이스 그랜드 슬램머'는 모두 47명. 이들은 포 데저트 클럽(The 4 Deserts Club)에 가입돼 있고, 그들에게는 자긍심이 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도전의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디뎌 조금씩 꿈을 이루어 온 사람들의 모음이기에 때문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싱글즈' 등의 제작부에서 일했던 김씨는 지난 2001년 김성수 감독의 '무사' 촬영을 마치고 TV를 보던 중 'KBS 일요 스페셜-사하라에서의 7일, 한 은행원의 일상탈출'이라는 프로에 마음을 빼앗겼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었고, 도전하지 않고 사는 삶은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영화와 사막 레이스를 도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하라 사막 마라톤 출발선에 섰다.

책은 준비 과정을 비롯해, 5개 사막 레이스에 나선 그녀가 들려주는 잔잔한 이야기로 이

뤄져 있다. 장황한 미사여구 없이 담담하게 풀어 쓴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준다.

7년간 사막과 나는 대화해서 결국 그녀는 '인생'을 배웠다. 때론 절대 고독에 몸을 떨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사막 레이스를 통해 나누는 즐거움과 여유,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가슴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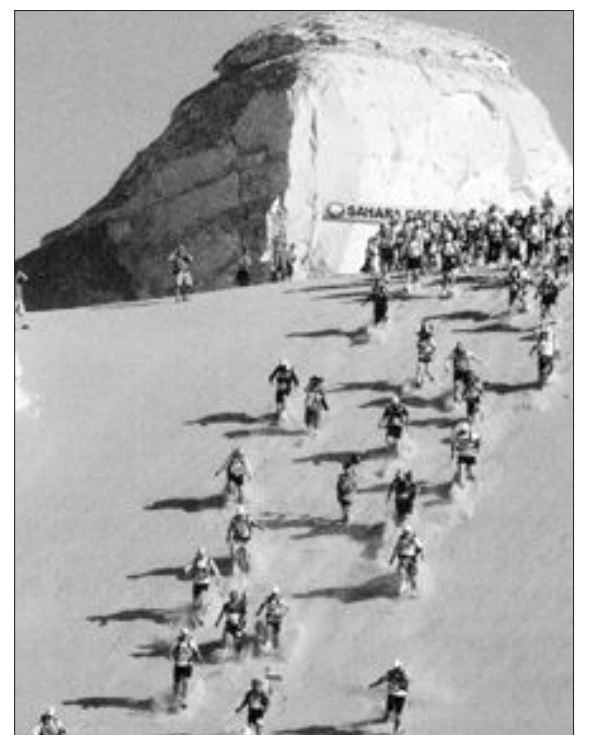
레이스 도중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다른 '인생'들을 만날 수 있다.

포 데저트 클럽 최고령 기록(66세)을 세운 오즈카 할아버지 등 일본인 할배 삼총사, 소아암을 딛고 레이스에 도전한 김호준과 그의 서포터즈로 함께 했던 고신에서의 이야기 등 세계 각국 레이스러들의 이야기는 코끝을 찡하게 한다.

책 말미에는 사막 레이스에 도전하고픈 이들을 위한 안내서를 실었다.

사막 레이스를 마친 그녀는 또 다른 레이스를 시작했다. '꿈꾸는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차렸고, 그곳은 그녀의 꿈을 만들어가는 공장 이 될 것이다. (일라·1만 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07년 사하라 사막 마라톤 레이스 당시 모래 바람을 일으키며 힘차게 달려 내려가는 참가자들. (일출출판사 제공)

엄마집서 무위도식 '찌질이 삼남매'

고령화 가족

천명관 지음



지난 2004년 제 10회 문학동네 소설상 당선작이었던 천명관의 '고래'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마치 보따리를 감춰놓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쑥쑥 건져 올리듯, 시공을 초월하며 종횡무진 펼쳐진 소설은 그가 뛰어난 이야기꾼임을 보여준다. 천씨가 6년만에 펴낸 장편 소설 '고령화 가족' 역시 술술 읽힌다.

소설은 전 5부에 120kg이 넘는 오십 넘은 형 '오환마', 데뷔 영화가 '그해 최악의 영화'로 꼽히면서 10년째 실패한 영화감독으로 생활중인 나, 두번째 이혼을 당한 여동생 미연 등 평균 나이 49세, '찌질한 삼남매'가 칠순이 넘는 엄마집에 얹혀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 '나'는 집에서 무위도식하며 가족들의 감춰진 이야기들을 알아가고, 소설 속 가족들은 때론 악다구니를 쓰며 서로를 증오하면서도, 때론 애잔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피식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에피소드들과, 그걸 풀어가는 유쾌한 문장이 다소 과격할 수 있는 소설 내용에 여유를 만들어준다.

주인공이 아파트 공터에서 쓰러진 '해밍웨이 전집' 속 해밍웨이 소설들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다.

문학동네·1만 3천원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등단 46년 ... 작품계적 담아

최하림 시 전집

최하림 지음



목표 출신 최하림(71) 시인의 작품을 총망라한 '최하림 시 전집'이 출간됐다.

196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에 나온 시인의 46년간의 시적 궤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363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1976년 첫 시집 '우리들을 위하여'부터 '작은 마을에서', '겨울 깊은 물소리', '속이 보이는 심연으로', '글잡나무에서 아이들이 온다', '풍경 뒤의 풍경'과 2005년 낸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 나'까지 일곱 권의 시집에 수록된 작품은 물론 전 쓴 습작시와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쓴 시들도 함께 묶였다.

김현, 김승옥, 김지수 등과 더불어 '산문시대' 동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시인은 1960~1980년대 엄격한 현실을 지나면서 때로는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응시하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 관조하며 완성도 있는 시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는 최근까지 일곱 권의 시집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드러난 이 시대의 정치적 폭력과 인간성 상실을 회의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했고, 자연의 생명력을 경탄하거나 죽음의 이미지를 탐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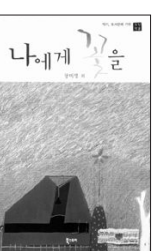
2002년 경기도 양평에 정착한 시인은 지난해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문학고지서사·2만원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일상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 담아

'나에게 꽃을' 의

이호 등 지음



도서관에 가면 어떤 문학작품을 읽어야 할까. 도서관과 친근한 작가들이 집필한 작품을 엮은 창작집 시리즈가 나왔다.

이번 집필에 참여한 작가들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주최)와 한국도서관협회(주관)에서 추진한 '문학관, 도서관에 문학 작가 파견사업'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시리즈는 소설 '나에게 꽃을', 수필 '동경을 만들었던 시간', 시집 '봄 하루에 꽃이 피었더니 보지 못하네', '사랑을 버리고 떠나라 하네', 동화 '가슴에 슬레가 있지'로 네 개의 장르 총 다섯 권(시집 2권)으로 구성됐다.

도서관 비치용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작품성도 뛰어난 수필작품은 단편의 원로작가들(6명)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추천과, 1·2차에 걸친 최종소설을 엮은 소설집 '나에게 꽃을'에

는 전인, 장미영, 천승세, 하야무시 등의 최근작을 담았다.

수필집 '동경을 만들었던 시간'에는 김경숙, 노경수씨 등 10명의 수필작가가 인생과 자연을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을 진솔하게 풀었다.

이외에도 작품집마다 작가들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세계관이 표출되어 있으며, 세상에 대한 조망과 관찰력이 돋보인다.

북스트리·각권 1만원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상공인중개사' (Efficient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T.062-376-4056 and H.010-3126-1515.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바다공인중개사' (Sea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63)581-5909.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Premium Country House Sale) with contact info (063)581-5909.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Sangil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063)223-1772.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National Law Auction) with contact info 062)364-8700.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